

석사학위논문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과
모발 전문 관리 인식비교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박 세 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근희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과
모발 전문 관리 인식비교

The use of beauty servic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hair and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management on
specialty of hair.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박 세 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근희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과
모발 전문 관리 인식비교

The use of beauty servic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hair and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management on
specialty of hair.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박 세 미

박세미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과 모발 전문 관리 인식비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박 세 미

최근에는 남성들도 펌이나 염색을 자주하게 되었는데 남성의 이미지가 다양해지고 남·녀의 외모관리가 당연시되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아름다운 외모는 더 이상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미적 의식이 아니라 성별을 불문하고, 또한 특정 연령과 상관없이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는 사회·문화적인 욕구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너무 무리하게 스타일 변형에만 치중하다 보면 화학약품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미용 시술로 인해 물리·화학적인 모발 손상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모발 전문 관리의 중요성이 이전 보다 크게 요구되어지고 미용실 내에서도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었다. 최근에는 모발 전문 관리 쪽으로 경영되는 업소가 많아지고 헤어트리트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들이 아름답고 더불어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각자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발 전문 관리나 홈 케어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또한 모발의

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4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17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493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한 설문지 76부를 제외한 유효한 설문지 417부가 통계분석에 사용 되었다. 수집한 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SPSS 16.0이 사용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모발의 상태,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의 차이,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X^2 -test가 적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직업별로는 대학생, 월평균 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39.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모발상태를 살펴본 결과 모발의 굵기는 가는 모발이, 모발 길이는 미디움 헤어가, 모발 손상도는 약간 손상모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는 1년 평균 펌 횟수는 1~2회, 1년 평균 염색 횟수는 1~2회, 주로 이용하는 미용실 형태는 개인 미용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홈 케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린스/트리트먼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8.7%, 트리트먼트 구입처는 대형할인점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트리트먼트 사용 시 정보원은 TV등 방송 매체가 28.7%, 트리트먼트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제품의 효과가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필요성에 관해서는 꼭 필요하다가 57.9%, 사용 목

적으로는 모발보호가 41.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5.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여부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4%, 모발 전문 관리 이용 경험으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4.5%로 나타났다.

6.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 전문 관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발의 굵기, 길이, 손상도에 따라서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에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모발 손상도에 따른 홈 케어 실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모발의 굵기, 길이, 손상도에 따라서 모발 전문 관리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p < .01$, $p < .001$).

【주요어】 모발상태, 미용서비스, 모발손상, 모발 전문 관리, 홈 케어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모발의 손상 원인	5
제 2 절 모발 관리 방법	7
제 3 절 모발손상의 분류	8
제 4 절 모발손상의 유형	9
제 5 절 헤어 케어	10
제 6 절 헤어트리트먼트의 목적	11
제 7 절 헤어트리트먼트의 종류	11
제 3 장 연구방법	14
제 1 절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14
제 2 절 조사 도구	14
제 3 절 자료 처리 및 분석	15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16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제 2 절	모발상태 분석	18
제 3 절	미용서비스 이용 실태	20
제 4 절	홈 케어 실태	22
제 5 절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	25
제 6 절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모발 전문 관리의 차이	30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요약 및 결론	56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59
【참고문헌】	60
【설문지】	64
ABSTRACT	71

【 표 목 차 】

[표 3-1] 설문문항	14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표 4-2] 모발의 굵기, 길이, 손상	18
[표 4-3] 모발의 상태	19
[표 4-4] 1년 평균 이용 횟수 및 미용실 형태	20
[표 4-5] 주이용 시술	21
[표 4-6] 미용실 선택기준	22
[표 4-7] 홈 케어 실태	23
[표 4-8] 모발 전문 관리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25
[표 4-9] 이용경험 무 응답자의 비이용 이유	25
[표 4-10]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실태	28
[표 4-11]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시 고려사항	29
[표 4-12] 모발 굵기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31
[표 4-13] 모발 길이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33
[표 4-14] 모발 손상도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36
[표 4-15] 모발 굵기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37
[표 4-16] 모발 길이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39
[표 4-17] 모발 손상도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41
[표 4-18]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44
[표 4-19]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미사용 이유	44
[표 4-20]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구입 실태	45
[표 4-21]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실태	46
[표 4-22] 모발 손상도에 따른 샴푸, 드라이 사용 실태의 차이	48
[표 4-23]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49
[표 4-24]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만족도 차이	50
[표 4-25] 모발 길이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52
[표 4-26]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54

[표 4-27]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비이용 이유 5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며 그 아름다움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의 기준 또한 수 없이 변하여 왔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와 구성요소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연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물질적·시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개인의 외모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상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첫 인상을 결정하는 무언(Non-verbal Language)의 역할을 하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부터 취업, 사업 등에 이르기 까지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형성은 외모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헤어스타일은 중요한 요인이어서 인간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따라서 최근에는 남성들도 펌이나 염색을 자주하게 되었는데 남성의 이미지가 다양해지고 남·녀의 외모관리가 당연시되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아름다운 외모는 더 이상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미적 의식이 아니라 성별을 불문하고, 또한 특정 연령과 상관없이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는 사회·문화적인 욕구로 표현되어지고 있다²⁾.

이러한 국내 뷰티 스타일은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매스미디어의 특징 즉 파급력이 매우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서의 영향을

1) 강수옥, 「헤어스타일 변화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

2) 김미란, 「여대생들의 미의식과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적 인간의 미의식이나 외모관리 행동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뷰티산업은 최근에 들어서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업무를 감시 감독하려고 하는 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산업 종사자들이 활발하게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가 없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는 실정이다³⁾.

한편으로 이러한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너무 과하게 스타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화학약품의 남용, 무분별한 미용 시술로 인해 모발 손상 또한 많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는 웰빙이라는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추세로 아름다움은 건강과 어울릴 때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고 있어 헤어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모발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모발은 여러 물리·화학적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기 힘들고, 다만 잘라냄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모발이 그만큼 다시 성장하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되는데, 잦은 펌이나 염 탈색 등의 시술로 자신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므로 손상 없는 건강한 모발을 간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⁴⁾.

따라서 모발 전문 관리의 중요성이 이전 보다 크게 요구되어지고 미용실 내에서도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었다. 최근에는 모발 전문 관리 쪽으로 경영되는 업소가 많아지고 헤어트리트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앞으로의 뷰티서비스 산업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어드바이스와 고객의 마음을 잘 리드해 고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건가족복지부, 2009, p.2

4) 신옥남, 『여성의 두피 모발 상태와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

객의 만족감을 이어주는 점포가 아니면 번영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피 관리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제품의 응용방법과 인체의 생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두피나 모발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상담 고객에 따른 시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들이 아름답고 더불어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각자의 모발상태에 따라서 어떤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발 전문 관리나 홈 케어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모발관리 영역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관련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오강수,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즉 연령, 학력, 직업, 평균소득 등에 따른 모발상태와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에 대해 비교·분석 하여 앞으로의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자들의 모발상태를 알아본다.
3. 연구대상자들의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홈 케어 실태를 알아본다.
4. 연구대상자들의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5. 연구대상자들의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모발의 손상 원인

1.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약물작용, 내분비계 문제 등으로 두피에 영향을 주어 비듬성, 민감성, 지루성, 건성 등의 문제성 두피를 만들며, 심하면 탈모를 일으키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두피의 근육을 긴장, 수축시켜 모유두에 혈액과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같은 호르몬은 피지선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지나친 피지의 분비로 모공이 막혀 모발 성장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모발의 피지는 오염물질이 두피에 흡착하도록 하여 세균의 증식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도한 약물을 복용하면 소화기계통의 장애를 가져와 근본적인 영양 흡수를 막는다.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영양결핍은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분에도 결핍을 가져와 모발의 성장을 저해한다.⁶⁾

2. 물리적 원인에 의한 손상

고무줄과 머리핀 등에 의한 잡아당김, 금속성 저 품질 미용기구의 사용, 베개와 빗질 등으로 인한 마찰, 모발에 볼륨(volume)을 주기 위해 시술되는 백코밍 등의 경우에도 모발에 많은 손상을 입히며, 아이론과 헤어드라이어의 온도 과열도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된다.⁷⁾

3. 화학적 원인에 의한 손상

1) 알칼리제에 의한 손상

퍼머넌트 웨이브제, 염모제, 및 탈색제에는 알칼리제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모발의 가장 바깥 부분인 모표피 층을 팽윤시킴으로써 퍼머넌트 웨이브제, 염모제, 탈색제에 함유된 주성분이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해 필

6) Healing hair care Institute, 『Hair Care Art』, 서울 : 현문사, 2001, p.43.

7) 광형심 외 2인, 『Art of Wave』,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p.35.

요하다. 퍼머넨트 웨이브제나 염모제에 주로 알칼리제는 암모니아(ammonia),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 등이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휘발성의 물질로써 모발 및 두피에 잔류성이 없어서 모발 손상이 적은 편이지만 모노에탄올아민의 경우 휘발성이 없으므로 모발 및 두피에 잔류성이 많아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모발에 오랫동안 알칼리제가 잔류하게 되면 모표피 층이 팽윤되어 열려진 상태로 있게 되고, 어떤 마찰에 의해 모표피의 비늘 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손상을 입는다.⁸⁾

2) 산화제에 의한 손상

염·탈색제의 산화제로 과산화수소가 주로 사용된다.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함과 동시에 케라틴(keratin) 단백질을 분해하여 모발을 다공성모로 유도한다. 단기간 동안 동일한 모발에 염·탈색을 반복 시술하면 모발의 가로결합(측쇄결합, side chain bond)은 물론 세로결합(주쇄결합, main chain bond)까지 절단될 수 있다.⁹⁾

4.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

1) 햇빛에 의한 손상

자외선에 의해 열을 느낄 수는 없으나 바다, 산, 스키장에서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것은 이 자외선의 영향 때문이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모발도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단백질 변성을 일으킨다.

또한 자외선은 수분의 존재 하에 모발 속에 존재하는 유멜라닌(eumelanin)을 산화, 분해시켜 모발의 적색화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바닷물에 모발이 닿았을 경우 더욱 가속화되므로 해변에서 직접적인 태양광선에 모발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수욕 후에는 양질의 샴푸로 모발을 깨끗이 행구어 내고 헤어 트리트먼트제(hair treatment agent)를 사용하여 모발을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¹⁰⁾

8) 김민정 외 5인, 『모발 및 두피관리』, 서울 : Yelim, 2005, p.41

9)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 『모발학』, 서울 : 청구문화사, 2004, p.73

10) 상계서, p.69

2) 대기오염에 의한 손상

모발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은 공장의 연소가스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의 유황산화물(SO₂, SO₃), 질소산화물(NO, NO₂) 등에 의한 손상이다. 대기 중의 티끌, 먼지 등에 의한 모표피의 물리적 손상 등을 들 수 있다.¹¹⁾

제 2 절 모발의 관리 방법

가늘고 힘이 없는 모발은 정전기가 잘 생기며 서로 엉키기도 쉽다. 수분유지, 단백질과 유분공급, 일상적인 트리트먼트 기술을 해준다. 모표피가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 시 헤어로션(hair lotion)을 모발에 도포한 후 약한 바람으로 건조하며, 축 처지고 힘없는 모발은 모근부터 말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멜라닌의 분해가 쉽기 때문에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에센스(essence)를 사용한다.

굵고 뻣뻣한 모발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튼튼한 모발이므로 일상적인 보습효과를 주는 것이 포인트이며, 모발에 수분이 30% 정도 남아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을 위해서 아래로 건조시키면 모발이 차분하고 윤기 있어 보인다.

끈적거리는 기름진 모발의 경우 자주 감는 것은 두피나 모발에 더욱 자극을 주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2회 정도 샴푸를 하더라도 저자극성 샴푸제나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습 샴푸제 등의 선택이 중요하다.

갈라지고 끊어지는 모발은 과도한 화학기술이 원인이므로 더 손상이 가속화 되지 않게 영양공급에 중점을 두고, 스타일링제도 모발에 흡수율이 좋은 에센스를 사용한다.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게 끝이 둥근 브러시나 살이 영성한 브러시로 모발을 정리하며, 손상이 심한 부분의 모발은 잘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¹²⁾

11) 윤천성 외 6인, 『모발과 두피관리』, 서울 : 훈민사, 2004, p.85

12) 송지형 외 5인, 『TRICHOLOGIST EDUCATION BOOK』, 서울 : 국제두피건강협회, 2007, pp.52~53

곱슬머리는 곧게 뺀 생머리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발에 조금 습기가 있을 때 트리트먼트제를 발라주면 침투력이 높고 곱슬머리의 단백질 밀도를 균등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¹³⁾

제 3 절 모발손상의 분류

1. 모발손상 원인에 따른 분류

모발손상의 원인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생리적 원인으로 그 대표적인 것에는 영양결핍, 다이어트, 편식,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 질환 등이 있다. 둘째는 일상적 원인이 있는데 샴푸, 브러싱, 타올 드라이, 블로우 드라이, 전기 아이롱, 잘못된 커트 등에 의한 손상이다. 셋째는 화학적 원인으로 염색, 탈색, 퍼머, 스타일링 제 사용 등이며 넷째는 환경적 원인으로 자외선, 수질 및 대기오염, 바닷물, 수영장 물, 건조한 기후 등이 있다.

2. 모발손상 정도에 따른 분류

모발 손상을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형태적 손상(모발 외부의 손상)과 질적인 손상(모발 내부의 손상)으로 구분된다. 형태적인 손상은 모표피의 박리·소실, 모표면의 주름, 열모, 지모, 단모, 기타 모발의 외관상 비정상적인 상태 등으로 인하여 광택이나 촉감의 악화 등이 있으며 질적 손상으로서는 모피질 및 수질 층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일부가 물리적·화학적 변화로 인하여 악화 또는 유실되는 손상으로 천연보습인자(N·M·F), 간층물질의 유실에 의한 다공성모, 수분손실로 인한 건조성모, 케라틴 구조의 약화로 탄력성 저하 등이 있다.

3. 모발손상에 의한 변화의 종류

모발 손상에 의한 변화의 종류로는 첫째 형태적 변화로 모표피 문리의

13) 광희진 외 2인, 『미용과 영양』, 서울 : 청구문화사, 2001, p.136

변화 단모, 열모, 지모, 결절성 열모증 기타 외관상의 변화가 있으며 둘째 물리적 변화로는 인장강도의 저하, 팽윤률(함수율)의 증가, 성장·탄력의 변화, 색소흡착력의 변화, 이온교환력의 변화 등이 있으며 셋째는 화학적 변화로서 아미노산 조성의 변화(시스틴 함유량저하), 케라틴의 분해 용출 등이 있다.¹⁴⁾

제 4 절 모발손상의 유형

1. 갈라짐(split end) -연약한 손상모

모발 끝이 표피층이 손상됨에 따라 모수질 층이 노출되어 건조됨으로써 축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2. 결절성 열모증(trichorrhexis nodosa)

모표피 층이 손상을 입어, 그 속의 모수질 부분이 마디처럼 밖으로 나오는 증상으로, 머리중간에 끊어짐이 강하다. 이 질환은 주로 두발에서 발생하나 음모 및 겨드랑이의 모발에서도 발생 할 수 있으며, 선천성인 경우에는 전신에 나타나고, 후천성인 경우에는 자학 증세가 있는 정신 질환이나 가려움증이 심한 피부 질환에서 굵거나 문지르는 물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에 의해 또는 대사질환에서도 발생된다.¹⁵⁾

3. 엉킴(trichnodosis)

머리가 서로 엉키어 매듭이 생겨 빗질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탈모 또한 쉽게 일어난다. 한번 엉킨 머리는 자연 탈모나 인위적인 탈모가 일어날 때까지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4. 연주모(monilithrix)

모양의 불규칙한 발생,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 부풀어 올라 구슬 같은

14) 최근희 외 2인,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서울 : 수문사, 2001, p.65

15) 최근희 외 11인, 『모발과학』, 서울 : 수문사, 2001, p.154

모양으로 길이를 따라 마디가 생김, 종종 두피 근처에서 모발의 부서짐이 보인다.

5. 백모(canities)

모발이 성장하는 동안 모발색의 이상 현상, 정상모의 모발색의 결여로 인한 백모의 발생, 두발의 곳곳에 백모가 생긴다.

6. 고리 모양의 모발(ringed hair)

모발이 생성과 재생하는 동안 색소의 불규칙한 분배, 희미한 고리모양, 색상이 부족한 모발이다.

7. 손상된 큐티클(damaged cuticle)

부서지거나 끊어지거나 할킨 모발, 큐티클이 손상되었을 때 모발은 수분부족으로 인해서 건조모, 다공성 모발이 된다.

제 5 절 헤어 케어(hair care)

모발은 “제2의 얼굴”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곳이다. 우리 인체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곳이 얼굴과 모발이며 또한 자기 개성과 멋을 표출하고자 모양을 가꾸는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즈음 환경적, 유전적, 정신적, 신체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체 리듬이 깨져 밸런스가 맞지 않아 두피뿐만 아니라 모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발 손상은 기본이며, 건조하거나 민감해져 비듬, 탈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다¹⁶⁾. 모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머리 곁에 있으며,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도 모발상태가 건강할 때 더욱 돋보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며,

16) 김미경, 「두피·모발 클리닉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잦은 파마나 염색을 피하고, 피부염이나 모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여 모낭의 파괴를 막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극이 적은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고 정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¹⁷⁾

제 6 절 헤어트리트먼트의 목적

헤어트리트먼트는 모발에 수분, 유분 공급하여 두피나 모발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적모, 열모, 절모, 지모, 비듬방지 효과도 지닌 것으로 폭넓은 의미에서 린스제, 토닉, 헤어크림등도 포함된다. 강하면서 튼튼한 모발일지라도 퍼머넨트 웨이브나 헤어컬러링 시술상의 잘못이나 탈지력이 강한 샴푸나 샴푸조작의 불량, 드라이어의 열, 난폭한 브러싱, 일상 환경에서의 일광 자외선이나 대기 오염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진다. 이와 같은 자극으로 손상된 모발은 일반적으로 건조되어 유성분이 부족하고 광택이 없어지며 푸석거리 빛질이 나쁘고 헤어스타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모발은 피부와 달리 생활세포는 아니므로 한번 손상된 모발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발의 손상을 방지하는 일은 아름다운 모발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발의 건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과 유분을 보급하고 광택과 활력, 유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헤어트리트먼트제이다.¹⁸⁾

17) 한경희 외 7인, 『모발과학』, 서울 : 훈민사, 2000, p.203

18) 김경순 외 5인, 『퍼머넨트 웨이브 및 헤어컬러링』,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p.149

제 7 절 헤어트리트먼트의 종류

1. 헤어트리트먼트 크림 (hair treatment cream)

화학적 시술과 잦은 헤어드라이어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모발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고 부드러운 유막을 형성하여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모발에 윤기와 광택을 부여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후처리 타입으로 모발에 도포 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2. 헤어 팩 (hair pack)

모발을 손질하기 쉽게 하고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화형태의 제품으로 트리트먼트 크림보다 모발에서의 지속력을 높인 제품이다.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모발 내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미스트기나 열처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구성성분은 헤어린스와 비슷하지만 컨디셔닝 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집중적인 모발보호 효과가 있다.

3. 헤어 블로우 (hair blow)

스프레이식으로 분무하며 컨디셔닝 뿐만 아니라 스타일링 효과도 있다. 드라이 후 블로우(blow) 마무리 시 열이나 브러싱에 의한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리퀴드(liquid)타입으로 흡수가 빠르고 양이온 계면활성제와 실리콘 오일의 배합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 해준다.

4. 헤어 코트 (hair coat)

윤활성, 밀착성 및 내수성이 있는 고분자 실리콘을 사용하여 모발의 갈라진 부위와 손상된 부위를 코팅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19) 김미옥, 「모발 및 두피의 손상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9~10

5. 헤어 린스 (hair rinse)

린스는 세발 후 사용하여 모발에 매끄러움을 부여하여 모발의 표면 상태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이다. 모발 세정에 비누가 사용되었을 때는 알칼리와 금속비누를 제거하기 위해 구연산 등을 배합한 산성린스가 사용되었다. 산성린스는 현재도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 칼라의 시술 후에 사용되고 있다. 또 모발 세정시에 과도하게 탈지된 모발에 유분을 주기 위해 오일린스라는 유지류나 헤어크림을 물에 분산시킨 것이 모발의 마무리에 사용되고도 있다. 현재에는 양이온계면활성제와 고급 알코올 형성하는 겔 중에 여러 가지 유분을 배합한 유액상 또는 크림상의 린스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양이온계면활성제는 모발에 흡착하여, 모발표면의 마찰계수를 저하시키지만, 그 효과는 양이온계면활성제의 달린 사슬 길이가 길수록 크다. 모발표면의 마찰계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모발표면에 양이온계면활성제의 단분자층이 형성되는 정도의 흡착량으로 충분하다.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친수기를 모발의 방향으로 향하는 정전기적인 흡착으로, 친유기로 싸여 모발이 매끄럽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번 모발에 흡착한 양이온계면활성제나 유분은 단지 물 세척으로 간단히 탈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린스를 사용한 후는 가볍게 행구어도 충분히 행구어도 린스 효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⁰⁾ 샴푸한 모발은 샴푸의 세정작용에 의해서 유분이 부족하기 쉽고 푸석푸석하여 빗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모발은 건성 모발이 되어 손상의 원인이 된다. 또한 린스제는 대전방지 효과 이외에 유성성분을 보급하는 목적이 있다. 건강한 모발을 등전점이 pH4.5~5.5 정도의 약산성으로 이때가 가장 안정되고 튼튼한 상태이다. 린스제의 pH는 3~5 정도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양이온계면활성제와 함께 유분도 흡착시켜 모발을 유성막으로 덮어 광택을 주고 건조함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²¹⁾

20) 김주덕 외 5인, 『신 화장품 학』, 서울 : 동화기술, 1997, pp.499~500

21) 김경순 외 4인, 『모발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pp.143~144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4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17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493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한 설문지 76부를 제외한 유효한 설문지 417부가 통계분석에 사용 되었다.

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시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의 구성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문항

조사항목	내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4
모발 상태	모발의 굵기, 모발의 현재 상태, 모발의 길이, 모발의 손상정도	4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미용서비스 이용 종류와 횟수, 이용점포의 형태, 미용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	5
홈 케어 실태	트리트먼트 사용여부와, 사용 목적, 제품 구매 장소, 정보원, 사용 시 고려 요인, 모발 건조	10

	방법, 드라이 사용 시간, 아이롱 사용 횟수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여부와 동기, 필요시기, 고려 요인, 점포의 형태, 적정 시간, 적정 금액, 이용 후 만족&불만족 사항, 개선사항	16
계		39

제 3 절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SPSS 16.0이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문제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모발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의 홈 케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여섯째,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일곱째, 모발상태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끝으로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X^2 -test가 적용되었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총 417명 중 연령별로 20대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이상 24.2%, 30대 23.0%, 10대 16.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졸 28.1%, 기타(중졸이하) 15.6%, 전문대졸 12.9%, 대학원 재학이상 10.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학생 21.1%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생 15.6%, 서비스 종사자 15.3%, 사무 종사자 12.0%, 기타 11.5%, 전업주부 9.6%, 판매 종사자 7.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3%, 관리자 3.4%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 39.6%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200만원 미만 21.1%, 200만원~300만원 미만 16.1%, 400만원 이상 11.8%, 300만원~400만원 미만 11.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많은 것은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최종학력은 고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과도 상관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 역시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연령	10대	69	16.5
	20대	151	36.2
	30대	96	23.0
	40대 이상	101	24.2
	합계	417	100.0
학력	고졸	136	32.6
	전문대 졸	54	12.9
	대학교 졸	117	28.1
	대학원 재학 이상	45	10.8
	기타(중졸이하)	65	15.6
합계	417	100.0	
직업	전업주부	40	9.6
	중. 고등학생	65	15.6
	대학생	88	21.1
	관리자	14	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	4.3
	사무 종사자	50	12.0
	서비스 종사자	64	15.3
	판매 종사자	30	7.2
	기타	48	11.5
합계	417	100.0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65	39.6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8	21.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67	16.1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8	11.5
	400만 원 이상	49	11.8
	합계	417	100.0

제 2 절 모발상태 분석

연구대상자의 모발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표 4-2]과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발의 굵기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가는 모발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모발 36.0%, 굵은 모발 24.7%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길이는 미디움 헤어(어깨선)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보브 헤어(단발) 21.6%, 롱 헤어(허리선) 20.6%, 숏트 헤어 17.0%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손상도는 약간 손상모발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심한 손상모발 26.1%, 건강 모발 19.2%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이라도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모발의 길이가 주로 어깨선이나 단발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건강한 모발보다는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을 가진 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손상된 모발을 관리해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표 4-2] 모발의 굵기, 길이, 손상도 차이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모발 굵기	굵은 모발	103	24.7
	보통 모발	150	36.0
	가는 모발	164	39.3
	합계	417	100.0
모발 길이	롱 헤어 (허리선)	86	20.6
	미디움 헤어 (어깨선)	170	40.8
	보브 헤어 (단발)	90	21.6
	숏트 헤어	71	17.0
	합계	417	100.0
모발 손상도	건강 모발	80	19.2
	약간 손상모발	228	54.7
	심한 손상모발	109	26.1

합계	417	100.0
----	-----	-------

또한 연구대상자의 모발 상태는 [표 4-3]와 같이 염색/탈색 모발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퍼머 모발 33.8%, 자연 모발 24.7%, 매니큐어(코팅) 모발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비율이 20대 여성이 많았음을 고려해 볼 때 자연 모발 보다는 염색이나 펴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건강한 모발 보다는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이 많기 때문에 추후 모발 전문 관리실에서나 또한 홈 케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 모발의 상태

(N=417, %)

모발상태	빈도(N)	백분율(%)	
		응답	케이스
자연 모발	103	21.1	24.7
퍼머 모발	141	28.9	33.8
염색/탈색 모발	218	44.7	52.3
매니큐어(코팅) 모발	26	5.3	6.2
합계	488	100.0	117.0

제 3 절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1. 1년 평균 미용서비스 이용 횟수 및 미용실 형태

연구대상자의 1년 평균 펴밍 횟수는 [표 4-4]와 같이 1~2회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안함 26.4%, 3~5회 22.1%, 6회 이상 3.6% 순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염색 횟수는 1~2회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안함 25.7%, 3~5회 25.2%, 6회 이상 17.5% 순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펴밍이나 염색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26.4%, 25.7%로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6회 이상 염색하는 응답자가 1년 평균 6회 이상 펴밍을 하는 응답자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이용 미용실 형태는 개인 미용실 55.2%, 프랜차이즈 미용실 44.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인미용실을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1년 평균 이용 횟수 및 미용실 형태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1년 평균 펴밍 횟수	안함	110	26.4
	1~2회	200	48.0
	3~5회	92	22.1
	6회 이상	15	3.6
	합계	417	100.0
1년 평균 염색 횟수	안함	107	25.7
	1~2회	132	31.7
	3~5회	105	25.2
	6회 이상	73	17.5
	합계	417	100.0
주이용 미용실 형태	개인 미용실	230	55.2
	프랜차이즈 미용실	187	44.8
	합계	417	100.0

2. 주로 이용한 미용 서비스

연구대상자의 주 이용 미용서비스 시술의 형태를 다중응답으로 묻는 질문에는 [표 4-5]과 같이 커트가 66.4%로 가장 높았으며, 펌 41.0%, 염색 39.6%, 드라이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주로 이용한 미용 서비스

(N=417, %)

서비스	빈도(N)	백분율(%)	
		응답	케이스
펌	171	26.5	41.0
커트	277	42.9	66.4
드라이	33	5.1	7.9
염색	165	25.5	39.6
합계	646	100.0	154.9

3. 미용실 선택기준

연구대상자의 미용실 선택기준은 [표 4-6]과 같이 만족도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49.2%, 시술자의 기술 46.8%, 서비스 36.9%, 교통편리 19.4%, 브랜드 인지도 7.0%, 환경 7.0%, 인테리어 4.1%, 기타(주변의 소개 등)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객들의 미용실 선택기준이 과거에는 주로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을 많이 고려하였던 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용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서비스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고객의 모발의 상태를 고려한 헤어 스타일을 제공하여 줌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항목 요인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6] 미용실 선택기준

(N=417, %)

미용실 선택기준	빈도(N)	백분율(%)	
		응답	케이스
서비스	154	15.7	36.9
가격	205	21.0	49.2
만족도	259	26.5	62.1
환경	29	3.0	7.0
교통편리	81	8.3	19.4
브랜드 인지도	29	3.0	7.0
시술자의 기술	195	19.9	46.8
인테리어	17	1.7	4.1
기타 (주변의 소개 등)	9	0.9	2.2
합계	978	100.0	234.5

제 4 절 홈 케어 실태

연구대상자의 린스/트리트먼트 사용여부는 [표 4-7]과 같이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8.7%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3%로 나타났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트리트먼트 비사용 이유로는 생활적 습관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필요성을 못 느껴서 40.4%, 잘 몰라서 7.9%, 경제적 이유 2.2%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적 습관이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는 응답자가 전체 89명중 89.8%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사용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트리트먼트 구입처가 대형할인점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슈퍼마켓/편의점 19.5%, 화장품 전문점 18.6%, 미용실 17.7%, 기타 10.1% 순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사용시 정보원은 TV등 방송 매체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실 등의 전문 매장 22.3%, 친구나 주변사람 18.6%, 잡지 등 생활 정보지

14.3%, 인터넷 10.1%, 기타 5.5%, 병원 등의 전문 의료매장 0.6% 순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제품의 효과가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메이커) 12.5%, 주변의 권유 8.5%, 광고 5.2%, 기타 5.5% 순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필요성에 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41.2%, 전혀 아니다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트리트먼트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리트먼트 사용 목적으로는 모발보호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공급 32.6%, 윤기부여 14.3%, 정전기 방지 11.3%로 나타났다.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으로는 온풍드라이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온풍 드라이 22.1%, 자연건조 20.4%, 냉풍 드라이 9.4%로 나타났다. 드라이기 사용 시간으로 10분 이하 사용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안함 20.1%, 5분 이하 사용 17.7%, 11분 이상 사용 16.5%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롱/매직기 사용 빈도는 사용안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사용 28.5%, 주 2~3회 사용 19.7%로 나타났다.

[표 4-7] 홈 케어 실태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
린스/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예	328	78.7
	아니오	89	21.3
	합계	417	100.0
트리트먼트 비사용 이유	잘 몰라서	7	7.9
	생활적 습관	44	49.4
	경제적 이유	2	2.2
	필요성을 못 느껴서	36	40.4
	합계	89	100.0
트리트먼트 사용 구입처	미용실	58	17.7
	화장품 전문점	61	18.6
	슈퍼마켓, 편의점	64	19.5
	대형할인점	112	34.1
	기타	33	10.1

	합계	328	100.0
	TV 등 방송 매체	94	28.7
	잡지 등 생활 정보지	47	14.3
	인터넷	33	10.1
정보원	미용실 등의 전문 매 장	73	22.3
	병원 등의 전문 의료 매장	2	0.6
	친구나 주변사람	61	18.6
	기타	18	5.5
	합계	328	100.0
선택 시 고려사항	브랜드(메이커)	41	12.5
	제품의 효과	234	71.3
	광고	17	5.2
	주변의 권유	28	8.5
	기타	8	2.4
	합계	328	100.0
필요성	꼭 필요하다	190	57.9
	보통이다	135	41.2
	전혀 아니다	3	0.9
	합계	328	100.0
사용목적	모발보호	137	41.8
	정전기 방지	37	11.3
	윤기 부여	47	14.3
	영양 공급	107	32.6
	합계	328	100.0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	자연 건조(10번으로)	85	20.4
	냉풍 드라이	39	9.4
	온풍 드라이	201	48.2
	냉풍. 온풍 드라이	92	22.1
	합계	417	100.0
드라이기 사용 시간	5분 이하 사용	74	17.7
	10분 이하 사용	190	45.6
	11분 이상 사용	69	16.5
	사용 안함	84	20.1
	합계	417	100.0
아이롱/매직기 사용빈도	사용 안함	216	51.8
	매일 사용	119	28.5
	주 2~3회 사용	82	19.7
	합계	417	100.0

제 5 절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지여부는 [표 4-8]과 같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33.6%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 이용 경험으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5.5%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비이용 이유로는 [표 4-9]과 같이 가격이 비싸서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 24.9%, 자가 관리 17.8%,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12.3%, 시간이 없어서 13.4%,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 1.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응답자들이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이용경험은 적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용의 부담과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많아 낮은 이용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8] 모발 전문 관리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
모발 전문 관리 (헤어 클리닉)	알고 있다	277	66.4
	모른다	140	33.6
인지 여부	합계	417	100.0
이용 경험	있음	148	35.5
	없음	269	64.5
	합계	417	100.0

[표 4-9] 모발 전문 관리 이용 경험 무 응답자의 비이용 이유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
비이용 이유	가격이 비싸서	81	30.1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33	12.3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	4	1.5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	67	24.9
	자가 관리	48	17.8
	시간이 없어서	36	13.4
	합계	269	100.0

모발 전문 관리를 이용 해본 응답자들의 이용 후 만족도는 [표 4-10]과 같이 보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33.8%, 매우만족 9.5%, 불만족 7.4%, 매우 불만족 0.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만족도에서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모발보호 인지 시술 횟수에서 3~4회가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29.7%, 5회 이상 17.2% 순으로 나타났다. 적은 횟수로도 시술 후 모발보호가 되었다고 인지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불만족 이유로는 장기 관리에 대한 비용 적 부담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의 지속성 33.3%, 모발관리 전문매장의 서비스 수준 미비 8.3%, 많은 시간 부담 8.3%, 기타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술 전과 후에도 비용 적 부담이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1회 평균 관리 시간으로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 미만 30.4%, 2시간 이상 9.5% 순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관리 비용으로는 5~10만원 미만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이상 25.0%, 2~5만원 미만 19.6%, 1~2만원 미만 4.1%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의 금액이 대부분 5만원 이상이 전체의 76.4%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를 통한 외모향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7.7%, 매우 그렇다 16.9%, 그렇지 않다 3.4%, 전혀 그렇지 않다 3.4%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를 통한 외모향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65.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는 계절과 상관없이 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 14.2%, 봄 10.8%, 여름 8.8%, 가을 8.8%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 시 고려사항1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4-11]와 같이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사의 기술 34.5%, 직원의 친절한 상담 5.4%, 가격의 적정선 4.1% 순으로 나타났다. 고려사항2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격의 적정선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 20.9%, 관리실의 서비스와 분위기 13.5%, 직원의 친절한 상담 6.8%, 최신의 기계설비 5.4%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전문 관리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과 가격의 적정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개선사항으로는 관리 비용의 대중화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37.2, 관리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15.5%, 효과적인 관리시간 7.4%, 친절한 상담 0.7%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관리 장소로는 미용실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8.1%, 피부관리실 1.4%,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모발에 대한 관리 라는 인식으로 인해 미용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적절한 관리 비용으로는 5만원 이하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만원 이하 33.1%, 3만원 이하 14.2%, 10만원 이하 10.8%, 11만원 이상 0.7%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관리시간으로는 30분이상~1시간미만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이상~2시간미만 38.5%, 30분미만 4.7%, 2시간 이상

0.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의사는 예라고 응답자가 79.1%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 14.9%, 아니오 6.1%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진(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두피관리 및 두피마사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전 양진·성 희원(2008)과 김 효정(2009)의 연구에서도 20대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여 헤어스타일이나 모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표 4-10]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실태

(N=417, %)

항목		빈도(N)	백분율(%)	
이용 후 만족도	매우만족	14	9.5	
	만족	50	33.8	
	보통	72	48.6	
	불만족	11	7.4	
	매우불만족	1	0.7	
	합계		148	100.0
	(만족)	1회~2회	19	29.7
	모발보호	3회~4회	34	53.1
	인지시술	5회 이상	11	17.2
	횟수	합계	64	100.0
	(불만족)	효과의 지속성	4	33.3
		장기 관리에 대한 비용	5	41.7
		적 부담	1	8.3
		모발관리 전문매장의 서		
		비스 수준 미비		
		많은 시간부담		
	기타	1	8.3	
합계		12	100.0	
1회 평균 관리시간	1시간 미만	45	30.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9	60.1	
	2시간 이상	14	9.5	
합계		148	100.0	
1회 평균	1~2만원 미만	6	4.1	
	2~5만원 미만	29	19.6	

관리 비용	5~10만원 미만	76	51.4
	10만원 이상	37	25.0
	합계	148	100.0
모발 전문 관리를 통한 외모향상	매우 그렇다	25	16.9
	그렇다	72	48.6
모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시기	보통이다	41	27.7
	그렇지 않다	5	3.4
	전혀 그렇지 않다	5	3.4
	합계	148	100.0
모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시기	봄	16	10.8
	여름	13	8.8
	가을	13	8.8
	겨울	21	14.2
	계절과 상관없이	85	57.4
	합계	148	100.0

[표 4-11]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시 고려 사항

(N=417, %)

항목		빈도 (N)	백분율 (%)
모발 전문 관리 시 고려사항1	관리사의 뛰어난 기술	51	34.5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	83	56.1
	직원의 친절한 상담	8	5.4
	가격의 적정성	6	4.1
	관리실의 서비스와 분위기	0	0.0
	최신의 기계설비	0	0.0
	합계	148	100.0
모발 전문 관리 시 고려사항2	관리사의 뛰어난 기술	0	0.0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	31	20.9
	직원의 친절한 상담	10	6.8
	가격의 적정성	79	53.4
	관리실의 서비스와 분위기	20	13.5
	최신의 기계설비	8	5.4
	합계	148	100.0
개선사항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프로 그램 개발	55	37.2
	관리 비용의 대중화	58	39.2
	관리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교육	23	15.5

	효과적인 관리시간	11	7.4
	친절한 상담	1	0.7
	합계	148	100.0
적절한 관리 장소	미용실	133	89.9
	병원	12	8.1
	피부 관리실	2	1.4
	기타	1	0.7
	합계	148	100.0
적절한 관리 비용	3만 원 이하	21	14.2
	5만 원 이하	61	41.2
	7만 원 이하	49	33.1
	10만 이하	16	10.8
	11만 원 이상	1	0.7
	합계	148	100.0
적절한 관리 시간	30분 미만	7	4.7
	30분 이상~1시간 미만	83	56.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7	38.5
	2시간 이상	1	0.7
	합계	148	100.0
향후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의사	예	117	79.1
	아니오	9	6.1
	잘 모르겠다	22	14.9
	합계	148	100.0

제 6 절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홈 케어 실태, 모발 전문 관리의 차이

1.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1) 모발 굵기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1년 평균 펴고 염색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 4-12]에 나타내었다. 펴고 염색의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2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염색의 경우에는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5$). 1년 평균 염색 횟수를 묻는 질문에 굵은 모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회 이상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24.2%, 하지 않는다 22.4%, 3~5회 19.0%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모발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39.4%, 6회 이상 30.1%, 3~5회 28.6% 순으로 나타났다. 가는 모발은 3~5회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36.4%, 하지 않는다 34.6%, 6회 이상 32.9% 순으로 나타났다. 굵은 모발은 모발이 굵기 때문에 모발 손상에 대한 자각이 적어 염색 횟수가 다른 모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1년 평균 펴는 횟수는 모발의 굵기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통 펴는 하는 경우에는 모발관리 차원보다는 헤어 스타일링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여성들의 미의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타일적 측면에서 보면 커트,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링과 블리치, 드라이, 셋팅, 아이론, 업스타일 등으로 미용실에서 시술되고 있는 작업의 범주가 이에 속한다²²⁾.

[표 4-12] 모발 굵기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N=417, %)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굵은 모발	보통 모발	가는 모발	Row total (%)	χ^2 (df)
1년 평균 펴는 횟수	하지 않는다	32	35	43	110	11.956
		29.1	31.8	39.1	100	
		31.1	23.3	26.2	26.4	
	1~2회	53	78	69	200	
		26.5	39.0	34.5	100.0	
		51.5	52.0	42.1	48.0	
	3~5회	14	30	48	92	
		15.2	32.6	52.2	100	
		13.6	20.0	29.3	22.1	

22) 이효숙, 박숙현,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한국패션뷰티학회. 2(1), 2004, p.44

	6회 이상	4 26.7 3.9	7 46.7 4.7	4 26.7 2.4	15 100 3.6	
1년 평균 염색 횟수	하지 않는다	24	46	37	107	16.468* (6)
		22.4	43.0	34.6	100	
		23.3	30.7	22.6	25.7	
	1~2회	32	52	48	132	
		24.2	39.4	36.4	100	
	31.1	34.7	29.3	31.7		
3~5회	20	30	55	105		
	19.0	28.6	52.4	100		
19.4	20.0	33.5	25.2			
6회 이상	27	22	24	73		
	37.0	30.1	32.9	100		
	26.2	14.7	14.6	17.5		
주이용 미용실 형태	개인 미용실	61	81	88	230	0.919 (2)
		26.5	35.2	38.3	100	
		59.2	54.0	53.7	55.2	
	프랜 차이즈 미용실	42	69	76	187	
22.5		36.9	40.6	100		
40.8	46.0	46.3	44.8			
Column total(%)		103	150	164	417	
		24.7	36.0	39.3	100	
		100	100	100	100	

*P<0.05

2) 모발 길이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1년 평균 펴기 횟수는 [표 4-13]와 같이 롱 헤어는 1~2회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지 않는다 22.7%, 3~5회 15.2%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움 헤어는 1~2회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40.2%, 6회 이상 26.7%, 하지 않는다 26.4% 순으로 나타났다. 보브 헤어는 6회 이상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26.1%, 하지 않는다 21.8%, 1~2회 17.5%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하지 않는다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 26.7%, 3~5회 18.5%, 1~2회 9.0% 순으로 나타났다.

롱 헤어는 모발 손상과 묶고 다니는 경향이 많아 펌을 자주하지 않는 반면에 보브 헤어는 어중간한 길이로 인해 손질이 어려워 펌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숏트 헤어는 손질이 어려워 펌을 자주하거나 손질이 쉬워 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1년 평균 염색 횟수에서 롱 헤어는 하지 않는다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22.7%, 6회 이상 3~5회 16.2% 순으로 나타났다. 롱 헤어는 하지 않거나 1~2회로 자주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묶고 다니는 경향이 많아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미디움 헤어는 3~5회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43.2%, 하지 않는다 43.2%, 6회 이상 30.1% 순으로 나타났다. 보브 헤어는 6회 이상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26.7%, 1~2회 19.7%, 하지 않는다 15.0%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6회 이상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지 않는다 20.6%, 1~2회 14.4%, 3~5회 10.5%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펌과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감에 컬러의 자각이 커서 자주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주이용 미용실 형태에서는 롱 헤어가 개인미용실 23.0%, 프랜차이즈 미용실 17.6%, 미디움 헤어가 프랜차이즈 미용실 49.2%, 개인미용실 33.9%, 보브 헤어가 개인미용실 22.6%, 프랜차이즈 미용실 20.3%, 숏트 헤어가 개인미용실 20.4%, 프랜차이즈 미용실 12.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용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미디움 헤어가 손상이나 서비스적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²³⁾.

[표 4-13] 모발 길이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N=417, %)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롱 헤어	미디움 헤어	보브 헤어	숏트 헤어	Row total (%)	χ^2 (df)
	25	29	24	32	110	40.643***

23) 양숙희,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식행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2(1), 2007, p.91

1년 평균 펼침 횟수	하지 않는다	22.7 29.1	26.4 17.1	21.8 26.7	29.1 45.1	100.0 26.4	(9)
	1~2회	47 23.5 54.7	100 50.0 58.8	35 17.5 38.9	18 9.0 25.4	200 100.0 48.0	
	3~5회	14 15.2 16.3	37 40.2 21.8	24 26.1 26.7	17 18.5 23.9	92 100.0 22.1	
	6회이상		4 26.7 2.4	7 46.7 7.8	4 26.7 5.6	15 100.0 3.6	
	하지 않는다	27 25.2 31.4	42 39.3 24.7	16 15.0 17.8	22 20.6 31.0	107 100.0 25.7	
1~2회	30 22.7 34.9	57 43.2 33.5	26 19.7 28.9	19 14.4 26.8	132 100.0 31.7		
3~5회	17 16.2 19.8	49 46.7 28.8	28 26.7 31.1	11 10.5 15.5	105 100.0 25.2		
6회이상	12 16.4 14.0	22 30.1 12.9	20 27.4 22.2	19 26.0 26.8	73 100.0 17.5		
개인 미용실	53 23.0 61.6	78 33.9 45.9	52 22.6 57.8	47 20.4 66.2	230 100.0 55.2	11.117* (3)	
프랜 차이즈 미용실	33 17.6 38.4	92 49.2 54.1	38 20.3 42.2	24 12.8 33.8	187 100.0 44.8		
Column total(%)	86 20.6 100.0	170 40.8 100.0	90 21.6 100. 0	71 17.0 100. 0	417 100.0 100.0		

*P<0.05, ***P<0.001

3) 모발 손상도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1년 평균 펴는 횟수는 [표 4-14]와 같이 건강 모발은 하지 않는다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15.5%, 3~5회 12.0%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6회 이상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57.6%, 1~2회 54.0%, 하지 않는다 51.8%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6회 이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54.0%, 3~5회 30.4%, 하지 않는다 13.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모발 일수록 펴는 횟수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손상이 된 모발 일수록 펴는 횟수를 자주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펴는 횟수를 자주하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심한 손상 모발의 경우 펴는 횟수를 자주하지만 너무 많은 손상으로 인해 펴는 횟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약간 손상모발에 비해 적은 펴는 횟수 차이로 보여 진다.

1년 평균 염색의 횟수에서 건강 모발은 하지 않는다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18.2%, 3~5회 7.6%, 6회 이상 5.5%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1~2회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57.1%, 하지 않는다 54.2%, 6회 이상 26.3%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6회 이상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35.2%, 1~2회 24.2%, 하지 않는다 4.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일수록 염색을 하지 않았고 손상 모발일수록 염색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 펴는 횟수 차이보다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펴는 횟수보다 염색을 자주 하는 것이 모발에 손상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주이용 미용실 형태에서는 건강 모발이 개인미용실 23.9%, 프랜차이즈 미용실 19.2%, 약간 손상 모발이 개인미용실 54.8%, 프랜차이즈 미용실 54.5%, 심한 손상 모발이 프랜차이즈 미용실 32.1%, 개인미용실 21.3%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의 경우만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모발 손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 미용실 보다는 제품이나 크리닉의 다양성 또는 유명한 미용실의 신뢰도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김미란(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대 여성들의 헤어관리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커트나 염색, 펌 등의 관리가 높은 편이었으며 희망하는 헤어관리로는 두피관리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⁴⁾

[표 4-14] 모발 손상도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 (N=417, %)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1년평균 펌 횟수	하지 않는다	38	57	15	110	30.028*** (6)
		34.5	51.8	13.6	100.0	
		47.5	25.0	13.8	26.4	
	1~2회	31	108	61	200	
		15.5	54.0	30.5	100.0	
	3~5회	38.8	47.4	56.0	48.0	
		11	53	28	92	
		12.0	57.6	30.4	100.0	
6회이상	13.8	23.2	25.7	22.1		
		10	5	15		
		66.7	33.3	100.0		
1년평균 염색 횟수	하지 않는다	44	58	5	107	78.227*** (6)
		41.1	54.2	4.7	100.0	
		55.0	25.4	4.6	25.7	
	1~2회	24	76	32	132	
		18.2	57.6	24.2	100.0	
		30.0	33.3	29.4	31.7	
	3~5회	8	60	37	105	
		7.6	57.1	35.2	100.0	
		10.0	26.3	33.9	25.2	
	6회이상	4	34	35	73	
		5.5	46.6	47.9	100.0	
		5.0	14.9	32.1	17.5	
주이용 미용실태 형태	개인 미용실	55	126	49	230	10.565** (2)
		23.9	54.8	21.3	100.0	
	프랜	68.8	55.3	45.0	55.2	
	25	102	60	187		

24) 김미란, 전개논문, p.44

차이즈	13.4	54.5	32.1	100.0	
미용실	31.2	44.7	55.0	44.8	
Column total(%)	80	228	109	417	
	19.2	54.7	26.1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P<0.001

2. 모발 형태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1) 모발 굵기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모발 굵기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는 [표 4-15]과 같이 굵은 모발의 경우 드라이기 사용 시간이 사용안함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분 이상 사용 31.9%, 10분 이하 사용 22.6%, 5분 이하 사용 14.9%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모발의 경우 10분 이하 사용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분 이상 사용 39.1%, 5분 이하 사용 32.4%, 사용 안함 27.4% 순으로 나타났다. 가는 모발의 경우 5분 이하 사용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40.5%, 10분 이하 사용 37.4%, 11분 이상 사용 29.0% 순으로 나타났다. 굵은 모발일수록 머리를 말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 11분 이상 사용 하거나 너무 많은 소요 시간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는 모발일수록 머리를 말리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사용하거나 자연건조로 인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5] 모발 굵기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N=417, %)

샴푸 후 홈 케어 실태	굵은 모발	보통 모발	가는 모발	Row total (%)	χ^2 (df)
자연건조	27	24	34	85	5.303

샴푸 후 모발 건조 방법		31.8 26.2	28.2 16.0	40.0 20.7	100.0 20.4	(6)		
	냉풍 드라이	8 20.5	18 46.2	13 33.3	39 100.0			
		7.8 44.7	12.0 49.3	7.9 49.4	9.4 48.2			
	온풍 드라이	46 22.9	74 36.8	81 40.3	201 100.0			
		22 23.9	34 37.0	36 39.1	92 100.0			
	냉풍· 온풍 드라이	21.4 22.7	22.0 22.1					
	드라이기 사용 시간	5분 이하사용	11 14.9	24 32.4	39 52.7		74 100.0	15.038* (6)
			10.7 41.7	16.0 50.7	23.8 43.3		17.7 45.6	
43 22.6			76 40.0	71 37.4	190 100.0			
10분 이하사용		41.7 41.7	50.7 50.7	43.3 43.3	45.6 45.6			
		22 31.9	27 39.1	20 29.0	69 100.0			
11분 이상사용		21.4 21.4	18.0 18.0	12.2 12.2	16.5 16.5			
		27 32.1	23 27.4	34 40.5	84 100.0			
사용안함		26.2 26.2	15.3 15.3	20.7 20.7	20.1 20.1			
아이롱, 매직기 사용 빈도	사용안함	57 26.4	72 33.3	87 40.3	216 100.0	1.706 (4)		
		55.3 41.7	48.0 35.7	53.0 39.3	51.8 37.7			
		28 23.5	47 39.5	44 37.0	119 100.0			
	매일사용	27.2 27.2	31.3 31.3	26.8 26.8	28.5 28.5			
		18 22.0	31 37.8	33 40.2	82 100.0			
	주2~3회 사용	17.5 17.5	20.7 20.7	20.1 20.1	19.7 19.7			
	Column total(%)	103 24.7 100.0	150 36.0 100.0	164 39.3 100.0	417 100.0 100.0			

*P<0.05

2) 모발 길이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모발 길이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로는 [표 4-16]과 같이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에서 롱 헤어는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23.5%, 미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0.1%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헤어는 사용 45.4%, 미사용 23.6%, 보브 헤어는 미사용 30.3%, 사용 19.2%, 숏트 헤어 미사용 36.0%, 사용 11.9% 로 나타났다. 롱 헤어 일수록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숏트 헤어일수록 미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롱 헤어는 모발손상이나 정전기 방지로 인해 필요성을 느껴 사용이 높으며 숏트 헤어는 모발 손상이나 정전기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16] 모발 길이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N=417, %)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롱 헤어	미디움 헤어	보브 헤어	숏트 헤어	Row total (%)	χ^2 (df)
사용	77 23.5	149 45.4	63 19.2	39 11.9	328 100.0	42.07 4*** (3)
미사용	89.5	87.6	70.0	54.9	78.7	
	9	21	27	32	89	
	10.1	23.6	30.3	36.0	100.0	
	10.5	12.4	30.0	45.1	21.3	
Column total (%)	86 20.6	170 40.8	90 21.6	71 17.0	4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1

샴푸 후 모발 건조 방법으로는 [표 4-17]과 같이 롱 헤어는 온풍드라이가 23.4%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건조 20.0%, 냉풍·온풍드라이 18.5%, 냉풍드라이 12.8%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움 헤어는 냉풍드라이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온풍 드라이 44.6%, 온풍드라이 40.8%, 자연건조 29.4% 순으로 나타났다. 보브 헤어는 드라이가 26.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건조 21.2%, 온풍드라이 20.9%, 냉풍 드라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자연건조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 드라이 15.4%, 온풍 드라이 14.9%, 냉풍·온풍 드라이 10.9% 순으로 나타났다. 롱 헤어의 경우 머리가 길기 때문에 온풍 드라이로 말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숏트 헤어의 경우 머리가 짧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건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드라이기 사용시간으로는 롱 헤어가 11분 이상 사용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19.0%, 10분 이하 사용 16.3%, 5분 이하 사용 14.9%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움 헤어는 10분 이하 사용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분 이상 사용 40.6%, 5분 이하 사용 32.4%, 사용 안함 29.8% 순으로 나타났다. 보브 헤어는 5분 이하 사용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 이하 사용 23.2%, 사용 안함 21.4%, 11분 이상 사용 14.5%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사용 안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 이하 사용 28.4%, 10분 이하 사용 11.6%, 11분 이상 사용 4.2% 순으로 나타났다. 롱 헤어일수록 긴 머리를 말리기 위한 드라이기 사용 시간이 길며, 숏트 헤어일수록 드라이기 사용 시간이 짧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아이롱기, 매직기 사용 빈도 에서는 롱 헤어가 매일사용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2~3회 사용 20.7%, 사용 안함 15.7%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움 헤어는 주2~3회 사용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39.8%, 매일 사용 36.1% 순으로 나타났다. 보브 헤어는 매일 사용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21.3%, 주2~3회 사용 14.6% 순으로 나타났다. 숏트 헤어는 사용 안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2~3회 사용 14.6%, 매일 사용 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모발 길이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N=417, %)

샴푸 후 홈 케어 실태		롱 헤어	미디움 헤어	보브 헤어	숏트 헤어	Row total (%)	χ^2 (df)
샴푸 후 모발 건조 방법	자연 건조	17 20.0 19.8	25 29.4 14.7	18 21.2 20.0	25 29.4 35.2	85 100.0 20.4	19.369* (9)
	냉풍 드라이	5 12.8 5.8	22 56.4 12.9	6 15.4 6.7	6 15.4 8.5	39 100.0 9.4	
	온풍 드라이	47 23.4 54.7	82 40.8 48.2	42 20.9 46.7	30 14.9 42.3	201 100.0 48.2	
	냉풍 · 온풍 드라이	17 18.5 19.8	41 44.6 24.1	24 26.1 26.7	10 10.9 14.1	92 100.0 22.1	
드라이기 사용 시간	5분 이하 사용	11 14.9 12.8	24 32.4 14.1	18 24.3 20.0	21 28.4 29.6	74 100.0 17.7	47.713*** (9)
	10분 이하 사용	31 16.3 36.0	93 48.9 54.7	44 23.2 48.9	22 11.6 31.0	190 100.0 45.6	
	10분 이상 사용	28 40.6 32.6	28 40.6 16.5	10 14.5 11.1	3 4.3 4.2	69 100.0 16.5	
	사용 안함	16 19.0 18.6	25 29.8 14.7	18 21.4 20.0	25 29.8 35.2	84 100.0 20.1	
아이롱, 매직기 사용	34 15.7 39.5	86 39.8 50.6	46 21.3 51.1	50 23.1 70.4	216 100.0 0	24.028** (6)	

빈도	매일 사용	35	43	32	9	51.8	
		29.4	36.1	26.9	7.6	119.0	
빈도	주2~3회 사용	40.7	25.3	35.6	12.7	0	28.5
		17	41	12	12	82	
Column total(%)		20.7	50.0	14.6	14.6	100.0	
		19.8	24.1	13.3	16.9	0	19.7
Column total(%)		86	170	90	71	417	
		20.6	40.8	21.6	17.0	100.0	
Column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P<0.05, **P<0.01, ***P<0.001

3) 모발 손상도에 따른 홈 케어 실태의 차이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는 [표 4-18]와 같이 건강 모발은 미사용이 28.1%로 나타났으며, 사용이 16.8%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사용이 55.2%, 사용이 52.8%로 나타났으며, 심한 손상 모발은 사용이 28.0%, 미사용이 19.1%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일수록 린스나 트리트먼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손상 모발일수록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용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미사용 이유로는 [표 4-19]과 같이 건강 모발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잘 몰라서 28.6%, 생활적 습관 18.2%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잘 몰라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적 습관 56.8%, 필요성을 못 느껴서 50.0%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경제적 이유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적 습관 25.0%, 잘 몰라서 14.3%, 필요성을 못 느껴서 8.3%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심한

손상 모발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 진다.

트리트먼트의 구입처는 [표 4-20]과 같이 건강 모발은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구입하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 할인점 14.3%, 미용실 13.8%, 화장품 전문점 13.1%, 기타 9.1%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기타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 할인점 55.4%, 슈퍼마켓, 편의점 54.7%, 화장품 전문점 52.5%, 미용실 51.7%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미용실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품 전문점 34.4%, 대형 할인점 30.4%, 기타 24.2%, 슈퍼마켓, 편의점 14.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의 경우는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제품보다는 손쉽게 구입하는 편이며, 손상 모발의 경우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화장품 전문점에서 전문적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대형할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4-21]와 같이 건강 모발은 전혀 아니다라고 66.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21.5%, 꼭 필요하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보통이다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꼭 필요하다 48.4%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꼭 필요하다는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아니다 33.3%, 보통이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이 많을수록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손상이 적을수록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사용목적으로는 건강 모발이 정전기 방지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윤기부여 23.4%, 모발보호 14.6%, 영양공급 12.1%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도 정전기 방지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윤기부여 55.3%, 모발보호 54.7%, 영양공급 54.2%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영양공급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발보호 30.7%, 윤기부여 21.3%, 정전기 방지 10.8%로 나타났다. 손상 모발은 사용목적이 정전기 방지보다는 영양공급이나 모발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18]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N=417, %)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 여부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사용	55 16.8 68.8	181 55.2 79.4	92 28.0 84.4	328 100.0 78.7	6.894* (2)
미사용	25 28.1 31.2	47 52.8 20.6	17 19.1 15.6	89 100.0 21.3	
Column total(%)	80 19.2 100.0	228 54.7 100.0	109 26.1 100.0	417 100.0 100.0	

*P<0.05

[표 4-19]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미사용 이유

(N=89, %)

트리트먼트 미사용 이유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잘 몰라서	2 28.6 8.0	4 57.1 8.5	1 14.3 5.9	7 100.0 7.9	15.656* (6)
생활적 습관	8 18.2 32.0	25 56.8 53.2	11 25.0 64.7	44 100.0 49.4	
경제적 이유			2 100.0 11.8	2 100.0 2.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 41.7 60.0	18 50.0 38.3	3 8.3 17.6	36 100.0 40.4	
Column total(%)	25 28.1 100.0	47 52.8 100.0	17 19.1 100.0	89 100.0 100.0	

*P<0.05

[표 4-20]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구입 실태

(N=328, %)

트리트먼트 사용 실태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구입처	미용실	8	30	20	58	17.955* (8)
		13.8	51.7	34.5	100.0	
		14.5	16.6	21.7	17.7	
	화장품 전문점	8	32	21	61	
		13.1	52.5	34.4	100.0	
	슈퍼마켓, 편의점	14.5	17.7	22.8	18.6	
		20	35	9	64	
	대형 할인점	31.2	54.7	14.1	100.0	
		36.4	19.3	9.8	19.5	
	기타	16	62	34	112	
14.3		55.4	30.4	100.0		
정보원	TV 등 방송매체	29.1	34.3	37.0	34.1	14.879 (12)
		3	22	8	33	
		9.1	66.7	24.2	100.0	
	잡지 등 생활정보지	5.5	12.2	8.7	10.1	
		23	52	19	94	
	인터넷	24.5	55.3	20.2	100.0	
		41.8	28.7	20.7	28.7	
	미용실 등의 전문매장	8	25	14	47	
		17.0	53.2	29.8	100.0	
	병원 등의 전문 의료매장	14.5	13.8	15.2	14.3	
3		21	9	33		
친구나 주변사람	9.1	63.6	27.3	100.0		
	5.5	11.6	9.8	10.1		
기타	10	37	26	73		
	13.7	50.7	35.6	100.0		
기타	18.2	20.4	28.3	22.3		
	1		1	2		
기타	50.0		50.0	100.0		
	1.8		1.1	0.6		
기타	9	33	19	61		
	14.8	54.1	31.1	100.0		
기타	16.4	18.2	20.7	18.6		
	1	13	4	18		

		5.6 1.8	72.2 7.2	22.2 4.3	100.0 5.5	
선택시 고려 사항	브랜드 (메이커)	7	23	11	41	12.999 (8)
		17.1	56.1	26.8	100.0	
		12.7	12.7	12.0	12.5	
	제품의 효과	36	126	72	234	
		15.4	53.8	30.8	100.0	
		65.5	69.6	78.3	71.3	
	광고	7	8	2	17	
		41.2	47.1	11.8	100.0	
		12.7	4.4	2.2	5.2	
	주변의 권유	5	17	6	28	
		17.9	60.7	21.4	100.0	
		9.1	9.4	6.5	8.5	
기타		7	1	8		
		87.5	12.5	100.0		
		3.9	1.1	2.4		
Column total(%)		55 16.8 100.0	181 55.2 100.0	92 28.0 100.0	328 100.0 100.0	

*P<0.05

[표 4-21] 모발 손상도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실태

(N=328, %)

트리트먼트 사용 실태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필요성	꼭 필요하다	24	92	74	190	33.809*** (4)
		12.6	48.4	38.9	100.0	
		43.6	50.8	80.4	57.9	
	보통이다	29	89	17	135	
		21.5	65.9	12.6	100.0	
		52.7	49.2	18.5	41.2	
전혀 아니다	2		1	3		
	66.7		33.3	100.0		
사용목적	모발보호	3.6		1.1	0.9	
		20	75	42	137	13.048* (6)
		14.6	54.7	30.7	100.0	

		36.4	41.4	45.7	41.8	
정전기 방지		11	22	4	37	
		29.7	59.5	10.8	100.0	
		20.0	12.2	4.3	11.3	
윤기부여		11	26	10	47	
		23.4	55.3	21.3	100.0	
		20.0	14.4	10.9	14.3	
영양공급		13	58	36	107	
		12.1	54.2	33.6	100.0	
		23.6	32.0	39.1	32.6	
Column total(%)		55	181	92	328	
		16.8	55.2	28.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P<0.001

삼푸 후 모발 건조 방법은 [표 4-22]과 같이 건강 모발은 자연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드라이 17.9%, 온풍드라이 15.9%, 냉풍·온풍드라이 15.2%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냉풍드라이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온풍드라이 57.6%, 온풍드라이 55.2%, 자연건조 41.2%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온풍드라이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풍·온풍드라이 27.2%, 자연건조 27.1%, 냉풍드라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일수록 자연건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손상 모발 일수록 온풍드라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풍드라이를 많이 하면 뜨거운 열로 인해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온풍드라이를 하는 손상 모발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드라이기 사용시간은 건강 모발이 사용 안함의 응답자가 31.0%로 가장 높았으며, 5분 이하사용 21.6%, 10분 이하사용 16.3%, 11분 이상사용 10.1%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10분 이하사용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5분 이하사용 58.1%, 11분 이상사용 56.5%, 사용 안함 41.7%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11분 이상사용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27.4%, 10분 이하사용 25.3%, 5분 이하사용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일수록 건조방법 뿐 아니라 드라이기 사용 시간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아이롱, 매직기 사용 빈도는 건강 모발이 26.9%로 사용 안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2~3회 사용 14.6%, 매일사용 8.4%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매일사용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안함 53.7%, 주2~3회 50.0%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주2~3회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사용 31.9%, 사용 안함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모발 손상도에 따른 샴푸, 드라이 사용 실태의 차이

(N=417, %)

샴푸 후 홈 케어 실태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샴푸 후 모발건조 방법	자연건조	27	35	23	85	20.376** (6)
		31.8	41.2	27.1	100.0	
		33.8	15.4	21.1	20.4	
	냉풍드라이	7	29	3	39	
		17.9	74.4	7.7	100.0	
		8.8	12.7	2.8	9.4	
	온풍드라이	32	111	58	201	
		15.9	55.2	28.9	100.0	
냉풍·온풍 드라이	40.0	48.7	53.2	48.2		
	14	53	25	92		
	15.2	57.6	27.2	100.0		
드라이기 사용 시간	5분이하 사용	17.5	23.2	22.9	22.1	15.783* (6)
		16	43	15	74	
		21.6	58.1	20.3	100.0	
	10분 이하사용	20.0	18.9	13.8	17.7	
		31	111	48	190	
		16.3	58.4	25.3	100.0	
	10분 이상 사용	38.8	48.7	44.0	45.6	
		7	39	23	69	
	사용안함	10.1	56.5	33.3	100.0	
		8.8	17.1	21.1	16.5	
26		35	23	84		
	31.0	41.7	27.4	100.0		
	32.5	15.4	21.1	20.1		

아이롱, 매직기 사용 빈도	사용안함	58	116	42	216	23.523*** (4)
		26.9	53.7	19.4	100.0	
		72.5	50.9	38.5	51.8	
	매일사용	10	71	38	119	
		8.4	59.7	31.9	100.0	
		12.5	31.1	34.9	28.5	
주2~3회 사용	12	41	29	82		
	14.6	50.0	35.4	100.0		
	15.0	18.0	26.6	19.7		
Column total(%)		80	228	109	417	
		19.2	54.7	26.1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P<0.01, ***P<0.001

3. 모발 형태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1)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관리 이용경험은 [표 4-23]와 같이 굵은 모발은 예라는 응답이 26.4% 아니오 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으며, 보통 모발은 아니오 가 40.9%, 예 가 27.0%, 가는 모발은 예 가 46.6%, 아니오 가 35.3%로 나타났다.

[표 4-23]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N=417, %)

모발 전문 관리(헤어 클리닉)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굵은 모발	보통 모발	가는 모발	Row total (%)	χ^2 (df)
모발 전문 관리 (헤어클리닉)인 지 여부	알고 있다	65	98	114	277	1.290 (2)
		23.5	35.4	41.2	100.0	
	모른다	63.1	65.3	69.5	66.4	
		38	52	50	140	
이용경험	예	27.1	37.1	35.7	100.0	8.458* (2)
		36.9	34.7	30.5	33.6	
	아니오	39	40	69	148	
		26.4	27.0	46.6	100.0	
		37.9	26.7	42.1	35.5	

	64	110	95	269	
아니오	23.8	40.9	35.3	100.0	
	62.1	73.3	57.9	64.5	
Column total(%)	103	150	164	417	
	24.7	36.0	39.3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모발 전문 관리 이용 후 만족도는 [표 4-24]와 같이 굵은 모발은 불만족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30.0%, 보통 22.2%, 매우만족 21.4%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모발은 매우만족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26.0%, 보통 22.2%, 불만족 18.2% 순으로 나타났다. 가는 모발은 보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44.0%, 불만족 36.4%, 매우만족 14.3%, 매우 불만족 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모발 굵기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만족도 차이

(N=148, 64, 12, %)

모발 전문 관리 만족도	굵은 모발	보통 모발	가는 모발	Row total (%)	χ^2 (df)
이용 후 만족도	매우만족	3	9	2	14
		21.4	64.3	14.3	100.0
		7.7	22.5	2.9	9.5
	만족	15	13	22	50
		30.0	26.0	44.0	100.0
		38.5	32.5	31.9	33.8
	보통	16	16	40	72
		22.2	22.2	55.6	100.0
		41.0	40.0	58.0	48.6
	불만족	5	2	4	11
		45.5	18.2	36.4	100.0
		12.8	5.0	5.8	7.4
매우 불만족			1	1	
			100.0	100.0	
			1.4	0.7	
Column total(%)	39	40	69	148	

		26.4 100.0	27.0 100.0	46.6 100.0	100.0 100.0	
(만족) 모발보호 인지 시술 횟수	1회~2회	2	11	6	19	8.811 (4)
		10.5	57.9	31.6	100.0	
	11.1	50.0	25.0	29.7		
	3회~4회	12	7	15	34	
		35.3	20.6	44.1	100.0	
5회이상	66.7	31.8	62.5	53.1		
		4	4	3	11	
		36.4	36.4	27.3	100.0	
		22.2	18.2	12.5	17.2	
Column total(%)		18	22	24	64	
		28.1	34.4	37.5	100.0	
		100.0	100.0	100.0	100.0	
(불만족) 불만족 이유	효과의 지속성	3		1	4	10.800 (8)
		75.0		25.0	100.0	
		60.0		20.0	33.3	
	장기간 관리에 대한 비용적 부담	1	1	3	5	
		20.0	20.0	60.0	100.0	
		20.0	50.0	60.0	41.7	
모발관리 전문 매장의 서비스 수준미비			1	1		
		100.0	50.0	100.0		
				8.3		
많은시간 부담	1			1		
	100.0			100.0		
	20.0			8.3		
기타			1	1		
			100.0	100.0		
			20.0	8.3		
Column total(%)		5	2	5	12	
		41.7	16.7	41.7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2) 모발 길이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모발 길이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지여부는 [표 4-25]과 같이 롱 헤어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 모른다 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미디움 헤어는 알고 있다 43.0%, 모른다 36.4%, 보브 헤어는 모른다 24.3%, 알고 있다 20.2%, 숏트 헤어는 모른다 25.0%, 알고 있다 13.0%로 나타났다. 롱 헤어의 모발 일수록 손상도가 많고 머릿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숏트 헤어일수록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손인숙(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자기충전예언에 따라 좋은 성격 특성들을 실제로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표 4-25] 모발 길이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N=417, %)

모발 전문 관리 (헤어 클리닉)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롱 헤어	미디움 헤어	보브 헤어	숏트 헤어	Row total (%)	χ^2 (df)
모발전문 관리 (헤어 클리닉) 인지여부	알고 있다	66 23.8 76.7	119 43.0 70.0	56 20.2 62.2	36 13.0 50.7	277 100.0 66.4	13.661*** (3)
	모른다	20 14.3 23.3	51 36.4 30.0	34 24.3 37.8	35 25.0 49.3	140 100.0 33.6	
이용경험	예	34 23.0 39.5	64 43.2 37.6	33 22.3 36.7	17 11.5 23.9	148 100.0 35.5	5.149 (3)
	아니오	52 19.3 60.5	106 39.4 62.4	57 21.2 63.3	54 20.1 76.1	269 100.0 64.5	
Column total(%)		86	170	90	71	417	

	20.6 100. 0	40.8 100.0	21.6 100. 0	17.0 100.0	100.0 100.0	
--	-------------------	---------------	-------------------	---------------	----------------	--

***P<0.001

3)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이용 경험은 [표 4-26]과 같이 건강 모발은 아니오 가 23.0%, 예 가 12.2%, 약간 손상 모발은 아니오 가 55.0%, 예 가 54.1%, 심한 손상 모발은 예 가 33.8%, 아니오 가 21.9% 로 나타났다. 모발이 손상이 심할수록 모발 전문 관리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화학시술을 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며 손질 또한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동조(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자 고등학생들의 외모관리 행동요인 가운데 패션과 헤어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모관리 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전경자(2002)는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외모 사오가 개인의 이상적 외모 상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표 4-26]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인식의 차이

(N=417, %)

모발 전문 관리 (헤어 클리닉)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모발전문 관리 (헤어 클리닉) 인지여부	알고 있다	52 18.8 65.0	148 53.4 64.9	77 27.8 70.6	277 100.0 66.4	1.176 (2)
	모른다	28 20.0 35.0	80 57.1 35.1	32 22.9 29.4	140 100.0 33.6	
이용경험	예	18 12.2 22.5	80 54.1 35.1	50 33.8 45.9	148 100.0 35.5	11.043** (2)
	아니오	62 23.0 77.5	148 55.0 64.9	59 21.9 54.1	269 100.0 64.5	
Column total(%)		80 19.2 100.0	228 54.7 100.0	109 26.1 100.0	417 100.0 100.0	

**P<0.01

모발 전문 관리 비이용 이유로는 [표 4-27]과 같이 건강 모발은 현재모발 상태에 만족 한다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 25.0%,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21.2%, 자가 관리 18.8%, 시간이 없어서 13.9%, 가격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손상 모발은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관리 66.7%, 시간이 없어서 58.3%, 가격이 비싸서 53.1%, 현재 모발 상태에 만족 50.7%,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45.5%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손상 모발은 가격이 비싸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33.3%, 시간이 없어서 27.8%, 자가 관리 14.6%, 현재모발 상

태에 만족 3.0%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모발일수록 현재모발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모발 전문 관리를 받지 않으며, 손상이 심한 모발일수록 현재모발 상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전문매장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발 전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모발 손상도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비 이용이유

(N=269, %)

모발 전문 관리 비이용 이유	건강 모발	약간 손상 모발	심한 손상 모발	Row total (%)	χ^2 (df)
가격이 비싸서	9	43	29	81	47.450*** (10)
	11.1	53.1	35.8	100.0	
	14.5	29.1	49.2	30.1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7	15	11	33	
	21.2	45.5	33.3	100.0	
	11.3	10.1	18.6	12.3	
집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	1	3		4	
	25.0	75.0		100.0	
	1.6	2.0		1.5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	31	34	2	67	
	46.3	50.7	3.0	100.0	
	50.0	23.0	3.4	24.9	
자가 관리	9	32	7	48	
	18.8	66.7	14.6	100.0	
	14.5	21.6	11.9	17.8	
시간이 없어서	5	21	10	36	
	13.9	58.3	27.8	100.0	
	8.1	14.2	16.9	13.4	
Column total(%)	62	148	59	269	
	23.0	55.0	21.9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여 그에 따른 모발 전문 관리 활성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모발상태는 가는 모발과 보통 모발이 39.3%, 36.0%, 미디움 헤어(어깨선)가 40.8%, 약간 손상모발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모발상태는 염·탈색 모발이 52.3%로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1년 평균 펴·염색 횟수로는 1~2회, 주이용 미용실 형태는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인 미용실을 55.2%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이용 시술로는 커트가 66.4% 가장 많았으며, 화학시술로는 펴이 41.0%로 가장 많았다. 미용실 선택기준으로는 만족도가 62.1%, 가격 49.2%, 시술자의 기술 46.8%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홈 실태에서 린스/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78.7%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사용 이유로는 생활적 습관 49.4%, 필요성을 못 느껴서 40.4%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를 구입하는 곳은 대형할인점에서 34.1%, 정보원은 TV등 방송매체에서 28.7%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제품의 효과를 71.3%로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7.9%로 나타났다. 사용목적으로는 모발보호가 41.8%, 영양공급이 32.6%로 모발보호와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샴푸 후 모발 건조방법으로는 온풍드라이가 48.2%로 가장 많았고, 드라이기 사용 시간은 10분 이하사용이 45.6%, 아이롱/매직기 사용 빈도는 사용안함 51.8% 사용함 48.2%로 응답자의 절반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6.4%,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4.5%로 알고는 있지만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의 비이용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0.1%로 비용부담이 커서 이용하지 않거나,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4.9%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를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이용 후 만족도가 보통 48.6%, 만족 33.8%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를 3회~4회를 받은 후 모발보호가 되었다고 53.1%가 응답하였고, 불만족 이유로는 장기 관리에 대한 비용 적 부담이 41.7%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전과 후가 비용적인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비용의 대중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관리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60.1%가 응답하였고, 1회 평균 관리 비용은 5~10만원 미만으로 51.4%가 응답하였다. 모발 전문 관리를 통한 외모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5.5%로 나타났으며, 모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는 57.4%가 계절과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모발 전문 관리 시 고려사항으로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 56.1%, 가격의 적정선 53.4%로 나타났으며, 개선사항으로는 관리 비용의 대중화가 39.2%로 고려하는 사항과 개선사항에도 비용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관리 장소로는 미용실이 89.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용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관리 비용으로는 5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41.2%가 응답하였다. 적절한 관리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56.1%가 응답하였고, 이는 이전에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발 전문 관리 이용 의사에 대해서는 79.1%가 예라고 긍정적 응답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년 평균 펌의 횟수와 염색 횟수에서 롱 헤어 보다는 미디움 헤어와 보브 헤어가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모발 손상이 많을수록 펌과 염색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펌과 염색을 자주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모발 손상이 많을수록

개인미용실보다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미용실보다 제품과 클리닉 시스템이 다양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로 인한 차이로 보여 진다.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여부에서는 롱 헤어일수록 사용하고 숏트 헤어일수록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발 손상이 많을수록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모발일수록 린스나 트리트먼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발 손상이 심할수록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건강모발은 정전기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모발이 손상될수록 영양공급과 모발보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전문 관리 인지 여부에서는 롱 헤어일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발 손상이 심할수록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앞에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하였듯이 고객들이 아름답고 더불어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에 따라서 어떤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즉 모발의 굵기나 길이 등에 따라서 미용실에서 받는 염색이나 펌 등의 서비스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미용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품질은 서로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모발의 경우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의 경우에는 미용실에서도 모발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헤어 케어 프로그램이나 제품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모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고객이 스스로 건강한 모발을 위한 홈 케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제품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헤어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미용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발관리 영역에서 학문적인 체계가 더욱더 이루어

져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뷰티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지역이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많은 응답자들이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비용의 절감을 통해 모발 전문 관리의 대중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리트먼트의 정보원이 TV 등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가들이 관리법과 사용 방법, 모발 형태에 따른 제품 사용에 대해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구입처가 대형 할인점이 아닌 전문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희진 외 2인, 『미용과 영양』, 서울 : 청구문화사, 2001.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건가족복지부, 2009.
-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 『모발학』, 서울 : 청구문화사, 2004.
- 김경순 외 4인, 『모발 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 _____ 외 4인,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컬러링』,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 김민정 외 5인, 『두피 및 모발관리』, 서울 : Yelim, 2005.
- 김주덕 외 5인, 『신 화장품 학』, 서울 : 동화기술, 1997.
- 송지형 외 5인, 『TRICHOLOGIST EDUCATION BOOK Ⅲ』, 서울국 제두피건강협회, 2007.
- 윤천성 외 6인, 『모발과 두피관리』, 서울 : 훈민사, 2004.
- 최근희 외 2인,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서울 : 수문사, 2001.
- _____ 외 11인, 『모발과학』, 서울 : 수문사, 2001.
- 한경희 외 7인, 『모발과학』, 서울 : 훈민사, 2000.
- Healing hair care Institute, 『Hair Care ART』, 서울 : 현문사, 2002.

2. 학위논문

- 강경하, 「여성들의 모발손상에 의한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조사」, 대구 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강수옥, 「헤어 스타일 변화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경란, 「두피 및 모발관리 관련 미용업소 실태 및 이용고객의 태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리라, 「여대생의 모발미용관리 및 형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명우, 「전업주부들의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미경, 「두피 모발 크리닉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란, 「여대생들의 미의식과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미옥, 「모발 및 두피의 손상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희, 「제주지역 미용사의 모발 두피관리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옥연, 「물리적 화학적 헤어시술에 따른 모발손상 및 케어」,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정임, 「두피 모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지현, 「두피 모발 관리실의 고객만족도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문영란, 「직장인의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문영심, 「여성의 두피와 모발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변승환, 「여성들의 모발 미용실태 및 모발건강 관리실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미영, 「미용실의 두피 모발관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옥남, 「여성의 두피 모발 상태와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강수,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우수진, 「남자 대학생의 미의식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헤어 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위수영, 「두피 모발관리실의 이용실태 및 고객 만족도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윤선영, 「두피 모발 관리시설 형태에 따른 이용실태 및 고객만족도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윤주화, 「한국여성의 두피 및 모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진희, 「모발과 탈모에 관한 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란,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지영,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조사 및 전망」,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임미화, 「모발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과 사용실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전효은, 「화학전 인체 모발손상의 원인규명 및 해결방법 모색」,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의성, 「두피 및 모발관리의 필요성과 인식에 관한 조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_____, 김기영, 「일반인들의 모발손상에 대한 자가인식과 관리방법에 대한 조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7.
- 조선애, 「두피 및 두발관리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진정애,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동조, 「남자고등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화기술학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현애자, 「두피클리닉 이용자의 모발 및 두피관리 실태와 서비스이용 결정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수경, 「미용실내의 화학적 시술에 의한 모발손상과 트리트먼트의 중요성」, 숙명여자대학교 원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학회지

- 양숙희,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식행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2(1), 2007, pp.193~215.
- 오순숙, 남미우, 「헤어미용 종사자의 신체적 매력,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7(1), 2011, pp.149~159.
- 윤복연, 「여성들의 두피관리실 이용과 관련되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6(1), 2010, pp.1~14.
- 이재숙, 「혈액형에 따른 성격분류 및 탈모 민감도」, 『한국미용학회지』, 13(3), 2007, pp.1501~1507.
- 이정란, 임은진, 「국내 탈모관리 시장의 분석 및 전망」,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1), 2009, pp.153~161.
- 이진옥, 이주영, 「청소년들의 탈모원인과 인식정도」, 『한국미용학회지』, 13(1), 2007, pp.270~278.
- 이효숙, 박숙현,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한국패션뷰티학회』, 2(1), 2004, pp.44~59.
- 임은진, 김혜란 「화장품 시장에서의 두피 모발화장품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3), 2008, pp.708~716.
- 현지원, 김춘일 「탈모증상자들의 사회학적 특성과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1), 2008, pp.134~142.

【부 록】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서비스 이용과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인식비교 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처리 되어 순수한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최 근 희

연구자 : 박 세 미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⑤기타(중졸이하)

3. 귀하의 직업은?

- ① 전업주부 ② 중·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관리자
- 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⑥ 사무 종사자 ⑦ 서비스 종사자
- ⑧ 판매 종사자 ⑨ 기타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용돈수준을 응답해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이상

II. 다음은 귀하의 모발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모발 굵기는?

- ① 굵은 모발 ② 보통 모발 ③ 가는 모발

2. 귀하의 모발 현재 상태는?(중복응답 가능)

- ① 자연 모발 ② 퍼머 모발 ③ 염색/탈색 모발
- ④ 매니큐어(코팅) 모발

3. 귀하의 모발 길이는?

- ① 롱 헤어 (허리선) ② 미디움 헤어 (어깨선)
- ③ 보브 헤어 (단발) ④ 숏트 헤어

4. 귀하의 모발 손상은 어떤 편입니까?

- ① 건강 모발 ② 약간 손상모발 ③ 심한 손상모발

3. 귀하는 헤어트리트먼트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TV 등 방송 매체 ② 잡지 등 생활 정보지
- ③ 인터넷 ④ 미용실 등의 전문 매장
- ⑤ 병원 등의 전문 의료매장
- ⑥ 친구나 주변사람 ⑦ 기타()

4. 귀하는 트리트먼트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 ① 브랜드(메이커) ② 제품의 효과 ③ 광고
- ④ 주변의 권유 ⑤ 기타()

5. 귀하는 모발 트리트먼트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전혀 아니다

6. 귀하가 트리트먼트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 ① 모발보호 ② 정전기 방지 ③ 윤기 부여
- ④ 영양 공급

7. 귀하가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몰라서 ② 생활적 습관
- ③ 경제적 이유 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8. 귀하의 샴푸 후 모발을 건조하는 방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자연 건조(10번으로) ② 냉풍 드라이 ③ 온풍 드라이
- ④ 냉풍·온풍 드라이

9. 귀하는 헤어 드라이기 사용 시 걸리는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입니까?

- ① 5분 이하 ② 5~10분 이하 ③ 10분 이상

10. 귀하는 아이롱 또는 매직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 하십니까?

- ① 사용안함 ② 매일사용 ③ 주2~3회

V. 다음은 귀하의 모발 전문 관리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헤어 클리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귀하는 모발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발 관리 전문 매장(미용실 포함)에서 모발 전문 관리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번으로 가시오)

2-1. 위의 2번에서 ①‘예’ 라고 대답하였다면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2-2. 위의 2-1번에서 ①‘매우만족’ ②‘만족’이라고 답하였다면 몇 번의 시술 후에 모발보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2회 ② 3회~4회 ③ 5회 이상

2-3. 위의 2-1번에서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이라고 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의 지속성 ② 장기간 관리에 대한 비용 적 부담
③ 모발 관리사의 전문성 부족
④ 모발 관리 전문매장의 서비스 수준 미비
⑤ 많은 시간부담 ⑥ 관리 장소의 위치
⑦ 상담에 대한 설명 부족 ⑧ 기타

3. 귀하가 모발 전문 관리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회 관리 받는 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2시간 이상

4. 귀하가 모발 전문 관리에 지불하는 1회 비용은?

- ① 1~2만원 미만 ② 2~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만원 이상

5.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를 함으로써 외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향후 모발 관리를 받아볼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2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 ① 관리사의 뛰어난 기술 ② 모발에 맞는 전문제품 사용
③ 직원의 친절한 상담 ④ 가격의 적정성
⑤ 관리실의 서비스와 분위기 ⑥ 최신의 기계설비

8. 귀하가 생각하는 모발 전문 관리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② 관리 비용의 대중화
③ 관리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④ 효과적인 관리시간
⑤ 친절한 상담

9.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를 받기에 적절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용실 ② 병원 ③ 피부 관리실 ④ 기타

10.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를 시술받을 때 1회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만원 이하 ② 3~5만원 ③ 5~7만원
- ④ 7~10만 ⑤ 10만원 이상

11.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를 받기에 적절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미만
- ③ 1시간~2시간미만 ④ 2시간이상

12. 귀하는 모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 ④ 겨울 ⑤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13. 위의 2번에서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비싸서 ② 전문매장을 잘 몰라서
- ③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없어서 ④ 현재 모발상태에 만족
- ⑤ 자가 관리 ⑥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ABSTRACT

The use of beauty servic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hair and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management on specialty of hair.

Park, Se-Mi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Nowadays, many men often get services such as perms and dying. The hair styles of men have become varied. We live in an era in which we take for granted our outer appearance. The desire to have a beautiful appearance is no longer limited to women, but has become influential to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 It also reflects the cultural desires of society.

Hair styl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xpressing a person's individuality. Excessive modification of hair style results in hair damage from abusive chemicals and reckless procedur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hair care is becoming considered significantly more. This recognition has also increased in the hair salon.

Lately, the number of shops that deal with a specialty or hair have surged and the public's interest in hair treatment has expa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information about the kinds of hair service people use, and if it is dependent on their own hair condition. It is also to apprehend whether they use technical, professional care, or home care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rendy hair styles.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in order to figure out the trut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service, home care service, and management of technical hair service.

The research was targeted to female women who live in the Seoul, Gyeonggi area and ranged between teenage years to their forties. The data was collected between February 15th and March 17th. The surveys were self answered questionnaires.

5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but only 493 were collected. Among the 493, 417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76 were dishonest copies.

To analyze the collected statistical data, the SPSS 116.0 was used. A frequency study was also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surveyo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dition of, and types of hair, as well as the types of beauty services and home care services they used. A cross analysis was also us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ffects on hair from professional beauty services versus home care treatments. In the cross analysis, X²-test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onnection between variables.

The following summary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study:

1. The most comm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 among those surveyed was that most surveyors were in their twenties. High school graduates were the greatest in number in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university students made up the most prevalent occupational group. 39.6% of the surveyed had an average monthly wage that was less than one hundred thousand won.

2. In terms of thickness, length, and degree of hair damage, most of the surveyed had medium-length hair with a small amount of visible hair damage.

3. For perm and dyeing services, the number of beauty services used was 1–2 times per year. The majority of the surveyed were attracted to private hair salons.

4. As for home care services, 78.7% of those surveyed utilize rinse or hair treatments that are purchased from a conglomerate. 28.7% of the surveyors said they get information from TV or other broadcast media when they are considering using treatments. When considering why surveyors selected the products they did, 71.3% of people were most concerned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57.9% of the studied got treatments because they considered them to be necessary. 41.8% used treatments for protective purposes.

5. The effects of using technical treatment were known to 66.4% of those studied. 64.5% of those surveyed have had no experience using technical hair treatment

6. The results of the survey reveal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echnical hair management, the quality of home care, and the use of beauty services for hair and the thickness, length, and level of damage of hair. There is also a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home care and the level of hair damage.

Finally,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thickness, length, and level of damage in the hair and the awareness of technical treatment.

【Key Words】 Hair condition, Beauty service, Hair damage, Hair clinic, Home care